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실 외상 경험을 중심으로*

김민경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조성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개념도 및 타당화 연구로서, 상실 외상을 경험한 뒤 외상후 성장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성장에 도움을 주었는지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연구 1의 개념도 연구를 위해 경기도 S시 내 총 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8개의 핵심문항이 도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분류한 문항들을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개념도로 작성하였다. 차원은 총 2가지로, 인지·정서적 관여-행동적 관여와 개인적 요인-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범주는 총 4가지로 도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 결과, ‘가족들의 의지 및 책임감’,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 ‘수용과 의미탐색’,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 2에서는 상실 외상을 경험한 연구 1과 다른 새로운 청소년들 중 성장 집단 8인과 비성장 집단 8인을 각각 선정하여 연구 1에서 밝혀진 성장변인 38문항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를 비모수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장 집단이 비성장 집단보다 4개의 성장변인에 대해 모두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의의하는 바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상실 경험, 개념도 연구, 비모수 검정, 타당화

* 본 연구는 김민경(2017)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성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미카엘관(교수동) T401 / Tel: 02-2164-4277, E-mail: chopsy@catholic.ac.kr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한다. 상실경험이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되거나 이로 인해 특정한 목적이나 가치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실제적, 잠재적인 상태로 정의된다(Carlson, 1978). 특히 가족, 친구, 연인 등 중요한 대상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중요한 대상과의 물리적, 정서적으로 단절하게 되는 상실경험은 인간 삶의 유한성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실 사건에 대한 일반적 반응은 애도(grief)이며, 이는 어떤 대상이나 중요한 것들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강력하고 복잡한 감정으로서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공포, 깊은 슬픔, 무기력감, 절망과 같은 정서로 경험되어진다(Anderson & Mitchell, 1983). 또한 상실로 인해 인생 전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 및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실 경험은 다른 외상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생의 어느 시기에라도 갑작스럽게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상실 경험은 이들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발달적 특성상 정서적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Kesser, 2002).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의미있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별 등의 상실 외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정민선,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들이 교통사고뿐 아니라 관계실패, 심각한 거절 경험, 갈등 경험 등의 대인외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세 번째로는 청소년기는 가족, 친구, 교사 등 타인과의 애착이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김희수, 윤은정, 2004), 이 시기의 상실 경험은 위기와 좌절을 경험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은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물리적 지지체계 및 심리적 보호요인들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부모와 같은 가족의 상실경험은 개인에게 매우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상실을 경험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및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상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 및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삶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80%나 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 발병률이 약 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이선미, 은헌정, 1999), 외상이 주는 부정적 결과가 아닌 긍정적 측면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을 돕고 성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다. 개인은 외상을 경험함으로써 외상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변화 즉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을 이룰 수 있다(Danforth & Glass, 2001; Janoff-Bulman, 1992; Rosenblatt, 2000). 외상 후 성장은 한 개인이 삶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외상 사건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Tedeschi & Calhoun, 1995), 외상사건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를 의미한다(Calhoun & Tedeschi, 1999). 외상후 성장을 이

룬 사람들은 외상 이후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과 확신을 갖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증대되며, 삶에 대한 철학의 변화 및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Tedeschi & Calhoun, 1996, 2004).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고하는 성장의 모든 요소들을 나열할 수는 없으나, Tedeschi & Calhoun(1996)은 연구결과 공통적인 요인들이 제시되었으며, 분석을 바탕으로 성장 경험에는 개인적인 힘(personal strength), 타인과의 관계(relating to others), 삶의 새로운 가능성(new possibilities in life),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 그리고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 다섯 가지 요인은 크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된 인식’, ‘대인관계의 변화’, ‘삶의 철학에 대한 변화’라는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Linley & Joseph 2004; 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1996).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Janoff-Bulman, 1992, 2006). 자신의 연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향후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의 변화는 외상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의 타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실과 같은 외상을 경험하고 나면 상실된 관계에 대한 숙고와 더불어 이를 통해 다른 관계에 대한 그 의미가 깊어질 수 있다.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은 주변 타인에게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노출을 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와 구체적인 도움들을 받게 되면서 관

계의 중요성과 친밀감이 높아지게 된다(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2004). 셋째, 삶의 철학에 대한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나, 종교에 대한 믿음의 변화 및 새로운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과 실존에 대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기 쉽다. 즉 이러한 고민과 성찰은 이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들에 많은 변화를 주고, 인생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외상후 성장은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 대상의 대부분이 성인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외상후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 발달단계를 거쳐야 도달할 수는 인지적 특성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청소년 역시 외상후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많은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Clay, Knibbs, & Joseph, 2009; Kilmer & Gil-Rivas, 2010). 435명의 히스패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 연구에서 30%정도가 외상사건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외상후 성장을 보였다. 또한 종교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테러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Millam, Anamara, & Jennifer, 2004). 일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성장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Taku, 2012).

국내의 연구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현미, 정민선(2014)의 연구에서,

종교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외상후 성장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외상경험은 희망, 정서지능, 탄력성, 낙관성, 자기노출, 반추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내적 외적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의 변인들과의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또 다른 변인들이 외상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상후 성장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찾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의 대부분이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밝혀진 외상후 성장 변인들을 아동-청소년 시기라는 특정 발달 단계에 있는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현재 상실 외상을 경험한 국내 청소년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 척도나 기존의 이론을 확인하는 연구 외에도 외상후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질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이양자, 정남운, 2009; 최승미, 2008). 셋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특정한 외상 사건의 특성들을 배제한 채 여러 가지 외상들을 혼합하여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분석했다는 문제점도 있다(임선영, 권석만, 2012). 외상의 종류에 따라 그 심각성이나 이후 겪게 되는 과정들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외상'을 경험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특정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성장변인을 찾는 것은 각각 외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일부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밝혔듯이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 성인과는 다른 외상후 성장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들이 경험한 특정한 세계에 대한 이해는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외상후 성장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연구들이 더욱 축적될 필요가 있으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과 청소년이라는 발달적 특성이 가져다주는 성장변인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1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의 여러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혼합한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개념도 방법은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 그 이변의 구조를 탐색하고 기술하는 구조화된 방법으로(Kane & Trochim, 2007), 이를 통해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적 외적 요인들에 의해 외상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 1의 개념도를 통해 밝혀진 외상후 성장 변인들을 타당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연구 2를 실시하여, 개념도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의 개념도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상실 외상 경험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 변인 4가지에 대한 교차 타당화가 주 목적이다. 따라서 연구 1과 다른 새로운 외상후 성장 집단과 비성장 집단

간의 차이를 비모수 통계 기법을 통해 한 번 더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 법

연구 1.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개념도 연구

연구대상

연구 1에서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의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방법 및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위험요인과 이익, 후속조치, 개인정보보호방침, 보호자 및 본인동의절차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생

표 1. 개념도 연구의 참여자의 특성

N=8

참여자	나이	성별	상실 외상 경험	상실 대상과의 친밀도	경과 시간	K-PTGI 총점	YSR/TRF 결과
1	18	남	암투병중이었던 부의 자살(죽음 상실)	5	4년 10개월	91점	정상/정상
2	17	여	주 양육자였던 조모와 이별(단절 상실)	6	1년 6개월	70점	정상/정상
3	18	남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단절 상실)	3	8년	71점	정상/정상
4	16	남	모의 수감으로 인한 이별(단절 상실)	5	5년	81점	준임상/정상
5	16	여	부모의 이혼으로 부와 이별(단절 상실)	4	7년	84점	정상/정상
6	18	남	사고로 인한 부의 사망(죽음 상실)	4	2년 6개월	88점	정상/정상
7	18	남	질병으로 인한 부의 사망(죽음 상실)	6	6년	79점	정상/정상
8	16	여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단절 상실)	5	2년 4개월	84점	정상/정상
M	17.13			4.75	4년 6개월	81.00	
SD	0.10					7.48	

K-PTGI-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 YSR-청소년행동평가 척도, TRF-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

명윤리승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연구 1의 개념도 연구 대상은 상실을 경험한 경기도 S시의 청소년(14세-18세) 15명이 최초 선발되었으며, 이 중 외상후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은 8명의 청소년을 최종 선발하였다. 연구 1의 개념도 연구 참여자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들의 외상후 성장의 판단 기준은 상담심리 전문가 1인,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 1인, 외상후 성장 사전 연구자 1인과 함께 두 가지로 판단하였다. 첫째,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PTGI)에서 평균($M=59.48$)보다 1표준편차($SD=19.23$)이상의 총점을 얻고, 동시에 학교생활의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YSR)과 해당학생의 교사가 평가하는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 교사용(TRF)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임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PTGI)의 총점이 평균 이상이면서,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YSR)와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TRF)의 모든 하위척도가 ‘정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경우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는 척도임에 따라 정확한 성장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외상후 성장은 어떠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외상후 성장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평균이상이거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의 점수를 보일 때 외상후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국판 외상후성장 척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결과를 기준으로 추가였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의 여부나 적응 수준은 성인과 다르게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교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장이 된다(김희수, 윤은정, 2004). 학업, 학교규칙에 대한 이해, 교사와 같은 권위자와의 관계, 또래관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은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평가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Haynes,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 뿐 아니라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발달적 지표로서 외상후 성장의 기준으로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YSR)와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TRF)를 활용하였다.

측정도구

상실 외상을 확인하고, 외상후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상실경험 관련 질문지,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PTGI),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YSR),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TRF)를 사용하였다.

상실경험 관련 질문지

중요한 대상의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으로부터 상실의 대상, 상실의 종류, 상실대상과의 친밀 정도, 사건으로 인한 고통수준 및 경과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Sofka(1997)가 개발한 상실경험 관련 질문지(Loss History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죽음상실(사별), 관계상실(단절), 물리적 상실, 심리적 상실,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 중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을 제외한 총 8가지 상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험

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사건으로 인한 충격의 심각도, 그에 대한 심각한 정도, 사건 이후 ‘성장 및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시점, 경과시간, 상실 대상과의 친밀도, 상실의 예상 여부를 묻도록 하였다. 사건 당시의 심각도는 0점(전혀 심각하지 않음)에서 5점(아주 많이 심각)까지 평정하게 하였다. 상실대상의 친밀도는 0점(전혀 친밀하지 않음)부터 6점(매우 친밀함)으로 평정하며, 상실 대상의 중요도는 0점(전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6점(매우 중요함)으로 조사하였다.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PTGI)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2009)이 타당화하고, 임선영, 권석만(2012)이 원문과 대조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 수정한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이는 외상후 성장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0점(경험하지 못했다)에서 5점(매우 많이 경험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점에서 1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정적 변화로의 성장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Tedeschi 등(1996)이 개발한 원척도의 문항 내적합치도는 .90이었으며, 국내에서 송승훈(2009) 등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송승훈(2009)의 연구에서 K-PTGI의 평균(표준편차)는 59.48(19.23)이고, 남자는 59.14(19.79), 여자는 59.75(18.83)로 성별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YSR)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YSR(Youth Self-Report)를 개발하였고, 국내에서 오경자(2001) 등이 표준화한 K-YSR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들은 0점-2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는 크게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와 적응척도로 구분된다. 문제행동 척도는 다시 문제행동증후군(Syndrome Scales) 척도와 DSM진단척도(DSM-Oriented Scales), 문제행동 특수척도로 나뉜다. 결과는 점수의 의미와 분포를 고려하여 원점수를 통해 얻어진 백분위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환산한 T점수로 표시되며, T점수 60미만은 정상범위(normal stage), T점수 60~63은 준임상범위, T점수 64점 이상인 경우 임상범위로 구분된다. 한국판 YSR의 문제행동척도에서 각 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기타문제(.53)를 제외하면 .59~.93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TRF)

마지막으로 Achenbach와 Edelbrock(1991)가 교사나 학교 상담자 등이 학생의 문제행동 및 학교 적응상태를 평가하는 TRF(Teacher's Report Form)를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김민영(2012) 등이 표준화한 TRF(교사용 학생행동평가척도) 역시 YSR과 마찬가지로 0점-2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 역시 YSR과 동일하다. 내적합치도는 기타문제(.39)를 제외하고 .59~.97의 범위를 보이는 양호한 편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해 해당 교사나 상담자가 직접 해당 참여자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오경자, 김경아, 2015).

자료분석 및 절차

먼저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하는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 절차를 따랐다. 개념도 연구 절차는 개념도 준비단계, 아이디어 산출 단계, 진술문 구조화 단계, 개념도 분석 단계, 개념도 해석 단계, 개념도 활용 단계로 이루어진다(Kane, Trochim, 2007).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중요한 질문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질문은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외상사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 단계로써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개념도 연구 내용의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민경화, 최윤정, 2007). Kane & Trochim(2007)은 아이디어 진술문들을 종합할 때, 공통된 진술문들을 통합함으로써 적어도 100개 이하로 핵심문장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일대일로 상실 외상을 경험한 후 성장을 이룬 청소년을 만나 30~50분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축어록을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 8명의 진술문들을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4단계 절차에 의해 38문항의 핵심문장으로 정리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 구조화 단계로 크게 연구 참여자들이 핵심문장들을 자신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작업과, 각 문항의

중요도나 우선성 등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민경화, 최윤정, 2007). 이는 각 문항을 분류를 통해 구조화하는 이유는 핵심문항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에 있다(Trochim, 1989).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최종 38개의 핵심문항에 대한 문장카드를 제작한 뒤, 8명의 연구 참여자가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것끼리’ 직접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류할 때는 한 문장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최소 2개 이상의 문장이 짝을 이루도록 하되,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 사이의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이 38개의 핵심문항에 대하여 그것이 외상후 성장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 5점 Likert척도(1점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 매우 중요했음)로 평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로서 이전의 구조화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지도를 그리는 과정으로(민경화, 최윤정, 2007), 분류 자료를 통해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표를 작성한 뒤,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을 통해 각 문항들의 위치가 x축과 y축의 좌표로 표시된다. 이후 다차원 척도법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개념도를 그리기 위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는데, 이때 각 문항간 거리를 기반으로 자료들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Ward의 연결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민경화, 최윤정 2007).

결 과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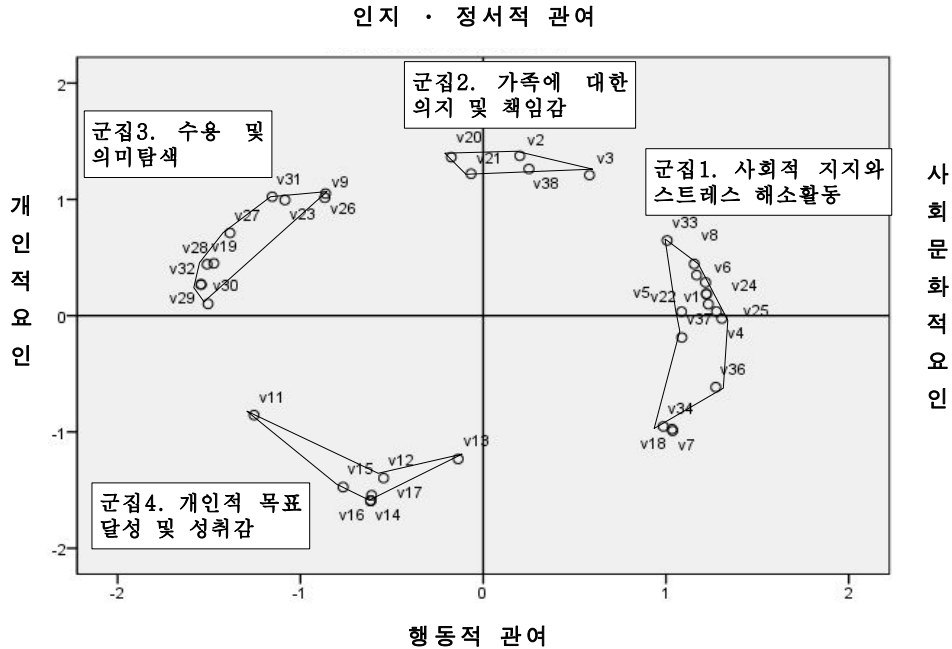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개념도

에 관한 개념도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핵심 문항은 총 38개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분류한 성장변인 핵심문항들의 값을 유사성 행렬표로 작성 후 합산하여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총 2개의 차원과 4개의 범주로 결정되었다. 이때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은 .299였고, 이 값을 개념도 연구를 위한 다차원척도분석에 적합한 평균범위(.205~.365)를 충족시켰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6). 각 문항은 개념도에서 좌표로서 표시되는데, 가까이 위치할수록 비슷한 범주로 분류된 것이며, 진술문들의 위치와 공통적 내용들을 종합하여 x축과 y축 2개 차원의 이름을 설정하였다. 군집을 결정할 때는 군집화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의 결과를 근거로 총 4개의 군집으로 결정하였으며, 범주명

은 상담심리전문가 1인,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 1인, 외상후 성장 관련 사전연구자 1인과 함께 연구 대상자들이 분류하여 이름붙인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개념도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개념도의 2개의 차원은 4개의 군집명을 기반으로, x축의 오른쪽은 사회문화적 요인 원편은 개인적 요인으로, y축의 상단은 인지·정서적 관여, 하단은 행동적 관여로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이 문항이 외상후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군집 1은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이며 전체 중요도 평균은 3.68이다. 대표 문항으로는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운동, 춤, 노래 부르기, 게임, 독서,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내 사정을 알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다”가 해당된다. 군집 2는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으로 전체 중요도 평균은 4.15이며 대표문항은 “남은 가족들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았다”, “생계를 위해 고생하는 가족을 보며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이다. 군집 3은 ‘수용 및 의미탐색’이고 전체 중요도 평균은 3.70이다. 대표문항으로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고, 그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연들을 듣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상실경험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나간 일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애썼다” 등이 있다. 군집 4는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으로 전체 중요도 평균은 3.77이며, 대표문항으로는 “학교에서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소속감이 생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 자신감을 얻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달성하는 경험을 했다”가 해당된다. 전체 중요도 평균값을 보면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 -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 - ‘수용과 의미탐색’ -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군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군집 1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은 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은 상실 경험 후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상호의존 및 보탬이 되려는 의지적 노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문장이 그 내용을 이룬다. 군집 3 ‘수용과 의미탐색’은 상실경험이 주는 의미,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4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은 성적의 향상, 학교 안팎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취 등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별 문항내용과 중요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그림 1 개념도의 사분면의 상단에 위치한 인지·정서적 관여는 군집 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 군집 3 ‘수용 및 의미탐색’ 전부와 군집 1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 중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분포한다. 이 중 차원 1의 원편인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군집 3 ‘수용 및 의미탐색’ 전체와 군집 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의 일부 문항을 포함하는데, 대체로 상실사건에 대한 인지적이고 내적 사고 과정을 수반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Calhoun & Tedeschi(2004)가 제시하는 외상후 성장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히고 있는 ‘반추’활동에 해당하는데, 끊임없는 반추를 통해 외상 사건에 대한 의미 탐색,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세계의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측 상단에 해당하는 ‘인지·정서적 관여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군집 1의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군집 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의 문항들이 분포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신 이외의 타인인 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위로나 지지, 다짐과 성찰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군집 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은 Calhoun & Tedeschi(2004)가 제시한 외상후 성장의 중요한 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가족을 일반 타인과 구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표 2. 외상후 성장변인 범주 및 문항별 중요도 값

군집1.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 (15문항, 중요도 전체 평균=3.68)		
문항		중요도
6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4.50
5	내가 힘들 때 친한 친구들이 함께 있어주고 위로를 해주었다.	4.25
18	운동, 춤, 노래부르기, 게임, 독서,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4.25
37	상담을 받으면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위로를 받는 경험을 했다.	4.25
4	친구들이 내가 우울해 보이면 함께 놀아주거나 즐겁게 해주었다.	4.00
8	내 사정을 알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다.	4.00
24	정말 믿을 수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나의 상실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받는 경험을 했다.	3.88
25	밝고 긍정적인 친구들이나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만한 친구들을 사귀었다.	3.88
7	그리기, 만들기, 춤추기, 책읽기 등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었다.	3.63
36	문화체험, 여행, 멘토링 등 학교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많은 복지혜택을 받았다.	3.63
34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피서장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50
22	상실대상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예 : 식사 챙겨주기, 놀아주기, 조언해주기 등 챙겨주는 대상)	3.13
1	친척들이 위로해주고 안부를 묻거나, 걱정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2.88
10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늘 내 옆에서 위로가 되고, 나를 아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2.75
33	성경구절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위로를 받았다.	2.63
군집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 (5문항, 중요도 전체 평균=4.15)		
3	남은 가족들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서로 의지할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4.38
2	생계를 위해 고생하는 가족을 보며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4.25
20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나라도 잘해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4.25
38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며 집안일을 도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	4.00
21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다.	3.88
군집3. 수용 및 의미탐색 (10문항, 중요도 전체 평균=3.70)		
9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고, 그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연들을 듣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4.25
19	상실경험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나간 일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애썼다.	4.25
29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자', '포기하지 말고 성공하자', '더 노력해보자'하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	4.25
27	좋은 날도 올 것이라고 믿으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했다.	4.13
32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시련도 겪는 것이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4.13
30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사소한 일들에 감사하고 행복하려고 애썼다.	4.00
28	상실경험이 나에게 주는 삶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보았다.	3.38
23	상실대상이 비록 지금 여기에 있지 않지만 늘 어디에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다.	2.88
26	상실 대상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다.	2.88
31	종교를 통해 상실대상과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생각했다.	2.88
군집4.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 (8문항, 중요도 전체 평균=3.77)		
17	학교에서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소속감이 생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평가를 보여줄 수 있어 자신감을 얻었다.	4.50
14	내가 잘하는 것들이나 이루어 낸 것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뿌듯했다.	4.25
11	내가 정말 원하고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다.	4.00
15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달성하는 경험을 했다.	4.00
16	성적이 올라 뿌듯했고, 성취감을 느꼈다.	4.00
13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졌거나 고민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경험을 했다.	3.63
12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에 나보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우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2.88
35	대회에 나가 상을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칭찬도 듣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겨났다.	2.88

개념도 사분면의 하단에 해당하는 행동적 관여는 군집 4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 전체 문항과 군집 1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 해소 활동’ 중 스트레스 해소 활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분포한다. 하단 좌측의 행동적 관여·개인적 요인에는 군집 4가 해당하는데,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나 기타 장소에서 본인의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인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Calhoun & Tedeschi(2004)의 외상후 성장과정에서 밝혀진 변인들 중에서도 ‘행동’적 차원에 해당되면서도 청소년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개념도의 우측 하단에 해당하는 행동적 관여·사회문화적 요인은 연구 참여자들이 상실경험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독서, 그림 그리기, 춤추기, 친구들과 PC방이나 노래방 가기, 운동하기’ 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활동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행동적 노력의 결과이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외상후 성장을 위해서는 인지적·정서적 노력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목표지향적 활동과 즐거움을 유발하는 대처행동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변인들을 개념도 방법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기존의 연구들이 밝힌 ‘인지적 반추’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에게도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이 밝힌 성인의 외상후 성장의 과정과는 다르게 중요한 성장변인으로서 ‘개인적 목표의 달성을 통한 성취경험’과 ‘스트레스 해소활동’이 중요

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2. 개념도를 통해 밝혀진 성장 변인들에 대한 타당화 연구

본 연구 2에서는 상실 외상을 경험한 새롭게 표집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성장 집단과 비성장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 1의 개념도 연구를 통해 밝혀진 4가지 성장변인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 ‘수용 및 의미탐색’,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연구 1의 결과를 타당화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연구의 위험요인과 이익, 후속조치, 개인정보보호방침, 보호자 및 본인동의절차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승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연구 2의 타당화 연구 대상은 상실 외상을 경험한 경기도 S시의 청소년(15세-18세) 16명이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외상후 성장을 이룬 집단 8명과 성장을 이루지 못한 비성장 집단 8명,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의 판단 기준은 앞선 개념도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다. 연구 참여자 특성은 표 3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타당화 연구의 '성장집단' 참여자 특성

N=8

참여자	나이	성별	상실 외상경험	상실 대상과의 친밀도	경과 시간	K-PTGI 총점	YSR/TRF 결과	성장변인 평정총점
1	16	남	부모의 이혼으로 부와 이별(단절 상실)	4	2년 3개월	87점	정상/정상	168점
2	15	남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 (단절 상실)	6	8년 5개월	68점	정상/정상	142점
3	16	여	질병으로 인한 부의 사망 (죽음 상실)	5	6년	67점	정상/정상	138점
4	15	여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 (단절 상실)	5	4년 9개월	69점	정상/정상	138점
5	15	남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 (단절 상실)	3	2년 6개월	85점	준임상 /정상	134점
6	16	여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 (단절 상실)	4	10년	72점	정상/정상	132점
7	16	남	사고로 인한 부의 사망(죽음 상실)	6	1년 2개월	62점	정상/정상	143점
8	17	남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 (단절 상실)	4	4년 3개월	60점	정상/정상	143점
M	15.75			4.62	4년 11개월	71.25		142.25
SD	0.71					9.88		11.17

측정 도구

연구 2에서는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연구 1에서 사용한 상실 경험 관련 질문지,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PTGI),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YSR),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TRF)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연구 1에서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을 새로운 성장 및 비성장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개념도

연구 결과의 교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연구 1에서 개념도 방법을 통해 추출된 38개의 핵심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정 질문지도 함께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및 절차

연구 2에서는 개념도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의 변인에 대한 교차 타당화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석 절차를

표 4. 타당화 연구의 '비성장집단' 참여자 특성

N=8

참여자	나이	성별	상실 외상경험	상실 대상과의 친밀도	경과 시간	K-PTGI 총점	YSR/TRF 결과	성장변인 평정총점
1	18	남	질병으로 인한 부의 사망(죽음 상실)	5	8년 6개월	38점	정상/정상	138점
2	16	여	부모의 이혼으로 부와 이별(단절 상실)	3	6년 10개월	37점	준임상/정상	111점
3	17	남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단절 상실)	4	3년 6개월	32점	정상/정상	128점
4	15	여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단절 상실)	5	7년 8개월	61점	임상/준임상	123점
5	18	남	부모의 이혼으로 부와 이별(단절 상실)	4	3년	47점	정상/정상	136점
6	15	여	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이별(단절 상실)	3	2년 1개월	73점	임상/준임상	101점
7	15	남	부모의 별거로 모와 이별(단절 상실)	6	5년	39점	준임상/정상	119점
8	16	남	부모 이혼으로 부와 이별(단절 상실)	5	2년 3개월	15점	정상/정상	62점
M	16.25			4.37	4년 10개월	47.25		114.75
SD	1.28					17.81		24.6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수가 적어(성장 집단: 8명, 비성장 집단: 8명) 정상성과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비모수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집단과 비성장 집단의 38개 핵심문항 중요도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점 및 군집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둘째, 성장 집단과 비성장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장 집단과 비성장 집단 간 38개 외상후 성장 문항들의 전체 점수 및 4개 군집별 문항 점수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고, 집단별 외상후 성장 문항들의 전체 및 군집별 평균 순위와 순위 합과 통계량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성장 집단과 비성장 집단 간 4가지 군집의 성장변인 및 총점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표 5. 성장-비성장 집단 성장변인 중요도 순위 비교 N=16

	집단구분	N	평균 순위	순위 합	Z	P
군집 1.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	성장 집단	8	11.38	91.00	-2.424	.015
	비성장 집단	8	5.63	45.00		
군집 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	성장 집단	8	11.25	90.00	-2.331	.020
	비성장 집단	8	5.75	46.00		
군집 3. 수용 및 의미탐색	성장집단	8	11.25	90.00	-2.322	.020
	비성장 집단	8	5.75	46.00		
군집 4.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	성장집단	8	11.00	88.00	-2.107	.035
	비성장 집단	8	6.00	48.00		
총점	성장 집단	8	11.88	95.00	-2.846	.004
	비성장 집단	8	5.13	41.00		

* $p < .05$.

성장 집단이 비성장 집단에 비해 모두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군집 1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Z = -2.42, p < .05$)’, 군집 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Z = -2.33, p < .05$)’, 군집 3 ‘수용 및 의미탐색($Z = -2.32, p < .05$)’, 군집 4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Z = -2.11, p < .05$)’, 총점($Z = -2.85, p < .01$) 모두 성장 집단과 비성장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비성장 집단에 비해 성장 집단에게서 연구 1의 성장 집단에서 밝혀진 38개의 핵심문항 평정 질문지의 문항들이 자신들의 외상후 성장에 보다 높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장 집단이 비성장 집단에 비해 연구 1의 개념도 연구에서 밝혀진 외상후 성장 변인들의 점수가 높음을 통해 교차 타당도가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밝혀진 성장변인을 새롭게 표집된 상실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타당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1의 개념도 결과 Calhoun & Tedeschi (2004)이 밝힌 외상후 성장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반추’ 활동이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실 경험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지지, 격려, 위로, 공감을 받는 경우, 외상후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인지적 ‘반추’ 활동은 상실 사건에 대한 경험 자체를 수용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주는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인지적 성숙을 이룬 성인들 처럼 인지적 성숙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외상후 성장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밝혀진 성인들의 외상후 성장 변인들과 달리 연구 1의 결과 밝혀진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변인의 특징은 다른 타인보다 상실을 함께 경험한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상호 의지 및 지지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상실로 인한 가족체계의 구조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족들의 지지가 있으면 이러한 상실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박현선, 1998). 또 다른 특징으로는 행동적 관여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업적·비학업적 성취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성미옥, 2003).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등 나름의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외상후 성장을 보인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연구 2에서는 8명의 외상후 성장을 보인 청소년과 8명의 비성장 청소년 총 16명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성장 변인으로 도출된 군집 4가지에 대한 교차 타당화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장 집단이 비성장 집단에 비해 모두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군집 1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활동', 군집 2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 군집 3 '수용 및 의미탐색', 군집 4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 및 총점 모두 성장 집단과 비성장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구 1의 개념도 연구에서 밝혀

진 4가지 외상후 성장 변인들이 연구 2의 성장-비성장 집단의 군집별 차이를 통해 교차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 요인들을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변인들 뿐 아니라 그 외 어떤 변인들이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외상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변인들을 찾아냈다. 그 결과 기존의 외상후 성장변인으로 잘 알려진 사회적 지지와 인지적 반추는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변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스트레스 해소활동, 개인적 목표달성 및 성취감과 같은 변인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나아가 상실이라는 국내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외상으로 그 대상을 한정지음으로써, 특정 외상 사건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상담 및 심리치료에의 적용에 있어서 본 연구는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 내담자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청소년 상담의 경우, 그들의 인지·정서·행동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개입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상담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및 학교 등 다양한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청소년 상담에 있어 보호자 상담이 함께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이 가장 중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면, 외상사건 이후 보호자 상담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가족 내 지지적인 자원들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조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상담의 경우,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담임교사와 또래관계를 통해, 성취감과 긍정적 강화를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지원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상담자에게도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내담자에게 인지적으로 사건을 재해석하도록 돕고, 외상사건을 억압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상담자가 상담관계를 통해 인지적 반추를 촉진시키는 것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자가 제공해야하고 개입해야할 다양한 치료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방법론적인 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 중요한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개념도 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상후 성장 연구는 양적인 방법론과 통계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개개인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의 내용들을 기술하는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유희정, 2012; 이양자, 정남운, 2009; 최승미, 2008). 또한 국내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에 대한 질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 개인의 고유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확인하는 개념도 방

법을 사용하였고, 개념도 연구는 질적 분석 방법과 양적분석방법을 결합하여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던 외상후 성장 변인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개념도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변인들을 한번 더 교차 타당화함으로써 개념도 연구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고 이로써 기존에 없던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들에 의해 외상후 성장을 이루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변인들을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한 만큼 질적 연구의 특성상 경기도 S시의 청소년들 중 상실 경험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상실이라는 특정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는 모든 외상 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기에는 대표성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상실 외의 다양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청소년 외상후 성장과 성인의 외상후 성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상후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외상후 성장의 단일 변인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것을 넘어 각 변인간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상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변인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민영, 김영아, 오경자 (2012). 한국판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 교사용(TRF)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2012.8, 367-391.
- 김지애 (2012).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촉진 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 정서적 폭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 정민선 (2014).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관련 변인 탐색. 교육치료연구, 6(2), 213-228.
- 김희수, 윤은정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0), 93-115.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 연구, 8(4), 1291-1307
- 박선정 (2015a).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0, 71-94.
- 박선정 (2015b).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25-47.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위협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1), 23-52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한국교육심리학회, 26(3), 787-816.
- 성미옥 (200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칭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자, 김경아 (2015).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매뉴얼, HUNO, 7-63.
- 유희정 (2012).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은현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조사.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지, 40(4), 581-591.
- 이선미, 은현정 (1999). 한국판 사건 충격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지, 38(3), 501-513.
- 이양자, 정남운 (2009).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임선영, 권석만 (2012). 대학생의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관한 연구: 인지적 유연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261-281.
- 최승미 (2008). 외상후 성장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derson, H., Mitchell, K. R. (1983).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resources for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1), 93-102
- Carlson, C. (1978).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 'Loss'* in chapter 4. 2nd ed. New York, J. B.; Lippincott. 72-112.
- Clay, R., Knibbs, J., & Joseph, S. (2009). Measurement of posttraumatic growth in young people: A review.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4, 411-422.
- Danforth, M. M., Conrad Glass, J. Jr (2001). Listen to my words, give meaning to my sorrow: A study in cognitive constructs in middle-age bereaved widows. *Death studies*, 25(6), 513-529.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155-171.
- Giorgi, A. (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p.12-18). Philadelphia: Duquesne University Press.
- Haynes, N. M. (1990). Influence of self-concept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20), 199-207.
-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Free Press.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Kessler, R. C. (2002).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pathology interventions on subsequent substance abuse: Policy implications,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6), 229-249.
- Kilmer, R. P., Gil-Rivas, V., Tedeschi, R. G., Cann, A., Calhoun, L. G., Buchanan, T., et al. (2009). Use of the revised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for Children (PTGI-C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 248-253.
- Kilmer, R. P., & Gil-Rivas, V. (2010). Exploring posttraumatic growth in children impacted by Hurricane Katrina: Correlates of the phenomenon an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Child Development*, 81, 1211-1227.
- Linley, P. A., Alex, J.,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Milam, J. E., Ritt-Olsen, A., & Unger, J. B. (2004).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 192-204.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Rosenblatt, P. (2000). *Parent grief: Narrative of loss and relationship*. Philadelphia: Brunner/Mazel
- Sofka, C. J. (1997). *Loss History Checklist*. In J. D. Maanino (Ed), *Grieving days, healing days*, (p.20). Boston: Allyn & Bacon.
- Taku, K., Kilmer, R. P., Cann, A., Tedeschi, R. G., & Calhoun, L. G. (2012). *Exploring posttraumatic growth in Japanese you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93-102.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원고접수일 : 2017. 06.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8. 20.
최종게재결정일 : 2017. 08. 28.

A Concept Map of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Loss Trauma Experience

Min-Kyung Kim

Seong-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s both a concept mapping study and a validity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of adolescents. It aims to empirically determine major contributors to the posttraumatic growth of adolescents, as a concept mapping study and a validity study. First of all, the researchers of the first study, which was a concept mapping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of eight adolescents,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who were reported to achieve the posttraumatic growth. The researchers summarized them into 38 core components, and created a concept map with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two dimensions consisted of cognitive · affective-behavioral engagement and personal-sociocultural factor. The four clusters were evaluated with 5-point Likert scales (1 = strongly disagree to 5 = strongly agree) for subjects to show how important each cluster was to the individual's context. The result referred to "willingness and responsibility of family members" as the most significant, followed by "the attainment of personal goals and a sense of achievement", "acceptance and searching for meaning" and "social support and stress relief activities". Next, the second study sought to validate fa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that were revealed in the concept mapping method through a new non-parametric statistics test. In this study, the 38 components of growth variables drawn from the previous concept mapping, were introduced to identify the importance to two groups, one of which consisted of an eight people of growth group, and the other an eight people of non-growth group.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growth group was ranked higher than the non-growth group, and the difference in the four clusters was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Lastly, it presen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posttraumatic growth, adolescents, loss trauma experience, concept mapping, cross validation, non-parametric statistics test*